

“핀테크 ×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결과

- 총 12,6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 속 성황리에 마무리
- 국내외 연사(기조연설·세미나 등)의 최신 핀테크 트렌드 및 전망 공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총 1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시관 및 세미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관람객(1,35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중 94.17%가 향후 박람회에 재방문 의사를 밝히며 행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었다.

※ 설문조사 결과(관람객 1,354명 대상) : 행사 만족도 93.35%, 재방문 의향 94.17%

이번 박람회는 ‘핀테크 ×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FinTech × AI, The Personalization of Finance)’를 주제로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결합해 출현할 초개인화 금융서비스의 미래를 조망하였다. 총 99개 전시부스 설치, 1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13개의 전문 분야별 세미나가 진행되어 최신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술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금융위원회 이역원 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한 개막행사에는 쇼넨두 모한티(Sopnendu Mohanty) GFTN(Global Finance & Technology Network) CEO, 키란 쿠마르 케사바라푸(Kiran Kumar Kesavarapu)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산업솔루션 및 아키텍처 디렉터 등 글로벌 연사도 참석하여 AI가 바꾸는 금융의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고 축하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이억원 위원장은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및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외 참가기업들을 격려했다.

2 최신 핀테크 트렌드 및 전망 공유

3일간 이어진 전문 분야별 세미나에서는 이번 박람회 주제처럼 관람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국내외 저명한 연사가 참석하는 13개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데이터 분석 분야를 선도하고, 최근에는 AI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SAS의 디팍 라마나단(Deepak Ramanathan) 부사장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에서도 AI와 에이전틱 AI는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AI 활용 시 책임 있고 윤리적인 거버넌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AI 도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소개하였다.

또한, 테카콘*으로서 최상위권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평가받는 Stripe의 비키 러셀(Bickey Russell)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성장 책임자도 AI가 글로벌 결제 플랫폼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타 산업 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계에서도 AI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Stripe는 700억~900억 달러 평가)

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특히,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연구원 등 전문 분야를 가진 기관들의 세미나가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결제원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의 실시간 탐지를, 신용정보원은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동향을, 보험연구원에서는 AI와 보험의 공존을 다루는 등 각 기관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심분 활용하여 미래에 AI가 금융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전망을 공유했다.

3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기회 제공

세미나뿐만 아니라, 항상 핀테크 기업의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나오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관련 행사도 진행되어 뜨거운 반응과 기대를 모았다.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 유수의 모험자본(VC)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5개社*가 IR을 실시하여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효성벤처스, SBVA, 인터베스트 등이 IR을 실시한 5개社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유치 결과가 기대된다.

* 소프트먼트, 아이오로라,페이이어, 스위치원, 씨앤티크 등 5개社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맞업’에서는 총 7,088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를 포함하여 25여 명의 핀테크 전문투자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99건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간의 간극을 좁혔다. 참가 기업들에게는 평소 접점 마련이 어려운 전문투자자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핀테크 업계에 대한 풍부한 자금 공급이 기대된다.

*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데일리파트너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마젤란 기술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신영증권,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SK증권, 인포뱅크, KB인베스트먼트,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 슈미트, 티인베스트먼트, 플렉스벤처스,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한화자산운용, 교보생명보험, 더인벤션랩, 스타벤처스, 블루웨일인베스트, 에이티넘벤처스

한편,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K-Fintech 30’ 선정식*을 통해 K-핀테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위상을 알리고, 홍보와 투자유치를 지원하였다. ’23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개 기업을 선정한 K-Fintech 30은 선정 시 제공되는 지원방안을 추가·개편하여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 K-Fintech 30 ’25년 선정기업: 그레이드헬스체인, 디자인앤프랙티스, 메사쿠어컴퍼니, 바이셀스탠다드, 수호아이오, 스텝페이, 오렌지스퀘어, 올라핀테크, 쿼터백그룹, 하이어다이버시티(이상 10개, 가나다순)

4 핀테크 산업계 교류·확장 지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서포트존과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지원사업 소개를 비롯하여,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155건) 일자리·취업 상담(182건), 핀테크 전문가 컨설팅(45건) 등 현장 상담을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 및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 멘토기업: 마이딜, 비바리퍼블리카, 씽크플랜두, 에임스, 이나인페이, 토모로우, 276홀딩스

한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모바일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은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 기능을 통해 회의 일정과 주제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는 네트워킹 라운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80개 핀테크 기업(작년 67개 기업), 21개 투자기업 및 유관기관이 활용

** 3일간 총 40개사의 자유 비즈니스 미팅 45건에 활용

행사 마지막날 열린 제8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7개 팀이 참가하였다. 공모전은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씽크플랜두’가 금융위원장상(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우수상 3개, 장려상 5개 등 총 9개 팀이 최종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제8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 >

상명	팀명(기업명)	대표자	아이디어 내용	비고(상)
대상	씽크플랜두	최진열	AI가 명령을 실행해 생활 속 요금 조회·인증·결제를 자동 처리하는 AI 금융 게이트웨이	금융위원장상
우수상	SHIN기술	이제용	물리적으로 도용이 불가능한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3D 서명을 하는 차세대 서명 플랫폼	한국신용정보원장상
	부디클	김대용	AI가 계약·결제·등기·세금납부를 자동 통합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거래를 완성	코스콤사장상
	상담서비스 혁신팀	배찬조	AI 기반 안심플랜 : 맞춤형 금융 헬스케어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플랫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상
장려상	네잎클로버	공희진	AI 예측 기반 맞춤 금융과 기상 연동 자동 보상 보험을 결합한 핀테크 솔루션	-
	분당판교 실리콘밸리	최현진	프리랜서의 세금·소득관리, AI와 블록체인으로 혁신	-
	빌지	김현호	동적 할인과 자동 알림으로 빠른 결제를 유도하는 B2B 플랫폼	-
	우동즈	이재우	CI/CD 파이프라인의 Travee 배포 자동화를 도입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여행자 보험	-
	Drive	이철민	블록체인 기반 책임 산정과 동적 요율로 자율주행 보험 서비스 구조 혁신	-

5 향후 계획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은 내년 11월25일(수)~27일(금) 3일간 올해와 같은 장소인 양재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수집한 관람객과 참가기관의 의견과 수요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 행사와 향후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김정현	(02-2100-253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	책임자	본부장	황인덕	(02-6375-1510)
		담당자	부 장	홍석훈	(02-6375-1508)
			주 임	주윤하	(02-6375-1517)

※ 프로그램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음

1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주요내용**[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 AI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 **생성형 AI의 금융 적용 사례와 리스트 관리 방안**(Deepak Ramanathan SAS Global CTO)
 - AI 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명확한 AI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이며 올바른 AI 거버넌스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 시장 민첩성 강화, 신뢰 구축,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조직 성과로 연결
 - SAS는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리딩 단계까지 발전하도록 돕는 AI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AI는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책임 있고 윤리적인 거버넌스와 병행 필요
- **핀테크-AI 기술의 융합 및 아시아 AI 금융 허브 전략**(Pauline 홍콩투자청 부대표)
 - 홍콩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IPO·채권 발행 등 전통 금융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1,200개 이상 핀테크 기업과 Web3·AI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혁신 허브로 자리 매김
 - 중국권역 기술기업과 크레딧 테크 경험을 결합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핀테크 Web3·AI 기업의 홍콩진출 및 글로벌 확장을 적극 지원 예정
-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AI, 글로벌 결제 B2B 플랫폼 혁신**(Bickey Russell Stripe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십 임원)
 - 글로벌 상위 100대 AI 기업 중 78%가 Stripe 활용,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AI 기업은 100% Stripe 사용
 - 결제, 구독·청구, 정산, 세금, 글로벌 머니 무브먼트(Global Money Movement) 등 인터넷 금융 인프라를 제공

○ **패널 토론 : 핀테크 & AI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좌장: Sopnendu Mohanty GFTN CEO)

- 아시아 전체가 AI 기반 차세대 핀테크 전환기에 있으며, 일 2만명이 참관하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은 모든 부스가 AI기반으로 한국 행사도 국제화와 AI 중심 트렌드 반영이 필요 (Sopnendu Mohanty GFTN CEO)
-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에서 확인된 핵심은 AI와 Agentic AI, 이는 모든 기업의 화두이며 아시아 AI 기업도 폭발적 성장 중이며, AI는 글로벌 기술 격차를 줄이는 균형자 역할 수행 (Deepak Ramanathan SAS Global CTO)
- 아시아는 인건비·운영비가 낮아 상업적 AI 모델 개발이 빨라 유용한 AI 금융서비스 다수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 (Pauline 홍콩투자청 부대표)

[VISA] 에이젠틱 AI와 커머스의 미래

○ **에이젠틱 AI와 커머스의 미래** (Parick Storey, Visa Korea 사장, Mhasde Swapnil

Money Movement 상품 총괄, Abhijeet Ramesh Visa 아태지역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총괄)

-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Agentic AI 시대 도래에 따라 커머스 및 결제 산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제시
- 토큰화·스테이블코인·AI·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핵심 기술과 함께 거래 의사결정 및 결제 자동화를 지원하는 ‘비자 인텔리전트 커머스(Visa Intelligent Commerce)’ 를 공개
- Agentic AI가 상품 탐색부터 가격 비교, 결제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커머스 환경을 설명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관련 기술 상용화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
- 또한 비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금 이동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비자 다이렉트를 중심으로 한 국경 간 지급·송금 혁신 사례를 소개
-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으로의 직접 지급, 글로벌 월렛 파트너십, USDC 연동, SAP와의 임베디드 금융 협력 등 다양한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
-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투명한 가치 교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및 한국의 핀테크 최신 트렌드와 미래(BCG 박영호 MD파트너)

-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기반으로 성장세 재진입 (2025년 매출 성장률 21%, 벤처투자 시장 6,770억 달러 투자 여력 확보)
- 핀테크 매출은 전체 금융 서비스의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미개척 영역이 많으며, 결제·투자·대출·보험 등 핵심 분야에서 ‘스위스 치즈’형 공백 구조가 성장 기회로 작용
- Agentic AI가 금융 운영모델을 재정의할 핵심 기술로 부상, 결제·대출·자산관리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동화·초개인화 경쟁력 강화 전망
- Onchain Finance는 토큰화 자산 기반 결제·청산 구조 혁신 잠재력 보유, 규제 명확성·표준화·기관급 인프라 구축 등 과제 해결 필요
- 대출 시장에서는 Private Credit 펀드가 약 2,8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핀테크 기반 신용평가·데이터 활용을 통한 B2B·소비자 대출 확장 촉진
- 향후 성장 견인 분야로 B2B(2X) 솔루션·금융 인프라·대출이 지목되며, AI 기반 백오피스 자동화와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산업 생산성 좌우
- 전략적 대응 과제로는 매출·수익성 중심 비즈니스 펀더멘털 강화, 자국 시장 지배력 확보, M&A 기회 활용, AI 중심 구조 전환이 제시됨
- 2025년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성숙 단계가 아닌 스케일업과 고품질 성장의 시작점에 있으며, AI 전환·인프라 재구성·대체 자본 부상이 지속 성장 모멘텀 제공

[금융결제원] AI 활용사례로 보는 미래 금융

- AI가 이끄는 금융의 진화: 동향과 응용 사례(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송재욱 교수)
 - 금융 인공지능의 동향(지출규모, 활용분야, 학술지 게재 동향 등)을 조망하고, ①AI 기반 포트폴리오 투자, ②금융 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 금융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공유
 - 금융 분야 인공지능 글로벌 지출 규모 증가 추세 속, 개발도상국은 고객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사기 탐지 등에 국한되나 선진국은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투자, 신규 상품 개발 등 폭넓은 영역에 AI 활용 중
-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정우 경감)
 -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도화·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 기법과 기술 인프라만으로는 대응에 제약이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치안정책연구소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수사지원시스템(BELUGA)을 개발
 - 음성을 텍스트로 정확하게 전사하는 Voice Note, 여러 목소리 중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Voice Matching, 대화 텍스트를 기반으로 유사한 범죄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Case Matching 등의 기능을 시연
- AI를 활용한 자금세탁 탐지 방법론(금융결제원 AX전략반 임선규 반장)
 - 자금세탁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정보가 가지는 이점 및 해당 자금 흐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자금세탁 의심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
 -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가 주관한 자금세탁 데이터 분석 챌린지에서 탐지 정확도 및 솔루션 제안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식별하기 어려운 자금세탁 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금융권 공동 대응의 필요성 및 실행 과제 등을 제언

[한국성장금융]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

-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 에서는 총 1,925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를 운용 중인 위탁운용사*가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전략, 투자대상 등을 소개함. 특히, ‘핀테크 ×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라는 주제에 맞춰 AI와 핀테크 결합을 통한 금융 시너지를 비롯하여 금융의 타산업 확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

* 데일리파트너스, 나이스투자파트너스,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신영증권

[삼정KPMG] AI시대, 해외진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의 Next 전략은?

- 해외 핀테크 시장 GTM 전략(삼정KPMG 김문섭 상무)
 - 글로벌 핀테크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AI 및 신기술 · 융복합 사업 모델 · 정책적 Leeway 활용 기반 GTM 전략 재정비 방향성 제시 및 Best Practice 사례 소개
- K-Fintech, 미국 모기지 시장에 진출하다(해빗팩토리 정운호 대표)
 - 해빗팩토리의 AI 기반 보험 분석 및 추천 서비스인 시그널플래너 및 미국 모기지론 중개 시장 진출 경험의 Lessons & Learned 공유
- AI for Billions, 이머징 마켓의 포용(어피넷 이철원 대표)
 - 어피넷의 성공적인 인도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등 이머징 마켓 내 금융 산업의 특성 및 AI 도입 현황 인사이트 제시
- 에이전틱 AI 시대를 위한 준비(데이터브릭스 민경호 이사)
 - 에이전틱 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준비 · AI 사업 전략 · 기술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브릭스의 Data Intelligence Platform 상품 소개

- AI 전략과 금융 산업의 프런티어 기업(마이크로소프트 최명근 팀장)
 -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한 프론티어 기업으로의 진화 단계를 제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End-to-End AI 솔루션 스택 소개
- 패널 토론 : AI 시대, 해외진출의 Next 전략은?(좌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황인덕 본부장)
 -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 시의 Trial & Error 경험을 공유하며, 3조 달러 규모의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회 설명(해빗팩토리 정윤희 대표)
 -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신흥 시장에서 여전히 낮은 핀테크의 침투율 분석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환기(어피넷 이철원 대표)
 - 본격적인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망분리 등 규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함을 제언(데이터브릭스 민경호 이사)
 -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더라도 현 인력의 인풋을 전부 대체하기는 어려우므로, AI를 통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마이크로소프트 최명근 팀장)

[신용정보원]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 기반 모델 · 솔루션

- 업권별 주요 AI 선도 기업*과 함께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기반 모델 · 솔루션’을 주제로 버티컬 AI, 에이전틱 AI 등 금융 혁신을 선도할 AI 기술 동향에 대한 심도 있고 다채로운 세미나를 진행
 - * 한국SAS소프트웨어, 신한은행, 아마존웹서비스(AWS), 크래프트테크놀로지
- 또한, 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및 서비스 소개와 함께 향후 서비스 발전 방향도 제시

[금융보안원] 시시대, 핀테크 보안의 오늘과 내일

- 금융권 AI 레드티밍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보안원 송은지 수석)
 - 글로벌 AI 레드티밍 동향 및 금융권 AI 레드티밍을 통해 확인한 취약점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AI 보안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
- 핀테크 서비스 모의해킹이란? - 인증 우회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원 유재욱 책임)
 - 핀테크 서비스의 인증 우회 취약점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실사례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위험성을 강조하고, 취약점의 근본원인 및 대응 방안을 공유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인과 AI가 만든 금융 혁신

- 블록체인 × AI 온체인 자율금융과 산업 혁신 트렌드 (ETRI 최선미 책임연구원)
 -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온체인 AI 에이전트 기반의 표준 등을 발표하는 등 시장 선점이 유력한 상황에서 표준화 정책, 상호운용성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자지갑 기반 디지털 신원 상호운용성 (KISA 이원철 연구위원)
 - 디지털 지갑은 개인의 신원정보부터 결제 수단, 디지털 자격 증명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으로
 - 이에 대한 지갑 보안과 상호운용성은 서비스 확장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KISA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K-BTF 구축을 통해 향후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개발,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예정

-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을 여는 촉매제(신한은행 김병희 셀장)
 - 기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으로서 전통 금융과 분리되어 왔으나, 현재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중
 - 모든게 토큰화 되는 시대, 전통 금융회사도 이러한 혁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진취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

[한국IBM] 핀테크의 도약 - AI & Quantum

- 핀테크/금융산업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의 기술 방향성과 전환 전략에 대해 IBM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AI] '26년 금융권의 핵심 키워드로 '에이전틱 AI, 소버린 AI, AI 거버넌스'를 제시하며, AI 에이전트 도입에 이은 시스템 복잡성 증가를 전망 (IBM 김지관 상무)
 - [양자컴퓨팅] 양자 컴퓨팅 기술이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추정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양자 유용성 단계를 넘어 양자 우위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미래 비전을 공유 (IBM 표창희 상무)
- IBM(김민성 상무)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황인덕 전략사업본부장), 한국금융연구원(백연주 연구위원)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 토론 진행
 - 핀테크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기술·산업 활성화 정책 등 논의. 특히, 핀테크 업체의 신기술 시범 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 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도입 사례 활용, 산학연 협력 등 강조

[BC카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인프라 수출전략 및 기대효과

○ 1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인프라 수출전략 및 기대효과 (BC카드 신금융연구소장 이상현 부사장)

- BC카드는 국내에서 축적한 결제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 신흥 국가 중심의 Q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결제 인프라를 수출해 왔으며 각국의 특성과 규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
- 인도네시아 국영은행과의 파트너십 통한 자체 결제망 구축 협업, 베트남 시장에 현금 대신 카드 결제 인프라 확대, 키르기스스탄에 결제 기술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
- 민간기업 자체로 진출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OICA 등 공적 개발원조(ODA) 제도를 활용, 한국형 금융 디지털 모델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관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

○ 2부. AI기반 금융결제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BC카드 데이터사업본부장 오성수 상무)

-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라 BC카드가 개발해 왔던 지급결제 기술들을 AI와 접목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 중
- 자체 금융결제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 분석 모델을 결합,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가맹점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맛집 추천 등 다양한 AI활용 지원 서비스를 개발·적용 중. 향후, 동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지능형 금융 서비스 기업' 으로 도약할 계획

[한국금융연구원]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라: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

○ 디지털 시대의 화폐: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 프로젝트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

-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이 공존 및 경쟁할 수 있는 미래 금융 인프라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층적(two-tier) 은행시스템을 통한 통화 단일성(singleness)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은행이 수행해 온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프로젝트 한강 및 프로젝트 아고라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한 민간 혁신 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향후 프로젝트 한강 추진 방향을 설명

○ Insight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Stablecoin Ecosystem

(Takezawa Yusuke 일본 Progmatic Inc. CSO)

-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 수익 중심의 접근이 아닌, 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한 장기적 제도 설계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자국 내에 고립된 갈라파고스형 시스템을 지양하고 생태계 설계 초기부터 글로벌 생태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함
- 민간기업 역시 단기적 이익 추구가 아닌 기업 윤리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음.

○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라: 디지털 화폐의 현재와 미래

(토론/좌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설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발행 주체 요건, 준비자산의 단기 국고채요건과 함께 장외·음지에서 이뤄지는 국경간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장내거래 유인책 등 정책적 과제가 있음(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 신뢰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둔 개방형 금융생태계 설계가 중요함. 또한 기술·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대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논의와 병행해 금융회사·핀테크·IT기업이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OBDIA 회장)

[보험연구원] 시와 보험 공존을 위한 방안

- 인슈어테크의 AI Risk 관리 전략(AIFT Lettie Sin 전략담당 부사장)
 - ‘인슈어테크의 AI Risk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Gen AI 활용에 따른 혁신 이면에 따라오는 새로운 위험을 지적하고, 특히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보험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Gen AI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준비 사항을 제시
- AI Agent와 보험설계사의 공존 전략(페르소나AI 유승재 대표)
 - ‘AI Agent와 보험설계사의 공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보험회사 내 AI Agent 기반 자동화와 Agent-to-Agent(A2A) 구조를 설명하고,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인간(보험회사 임직원, 설계사 등)과 AI의 협업 구성 및 전략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AI와 보험 공존을 위한 방안 토론(토론/좌장: 서울대학교 박소정 교수)
 - 전통적으로 보험회사는 결과의 정확성 검수가 끝난 상품만을 출시하였는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100% 확신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발생하면서 AI가 탑재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시 완성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는 완성도와 안전성을 갖춘 작은 상품부터 제공을 시도
(삼성화재 이동욱 AI혁신파트장)

- AI와 보험의 공존측면에서 보안 문제와 이에 따른 규제 이슈는 매우 중요하지만, AI의 도입은 보안 이슈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혜택도 동시에 고민하여 활용을 확대하는 균형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DB Inc. 신훈철 담당)
- 이제 Gen AI 및 AI Agent는 실제 보험산업에서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Gen AI가 가짜 상관관계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할루시네이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먼인텔리전스를 통한 통제 전략을 반드시 구축해야 함 (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 기타 프로그램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테크파인더 쇼케이스

- 화물운송 중개 기반 핀테크 서비스 Primo (김자영 곳간로지스 대표)
 - B2B기반의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으로 배차, 운임, 정산, 전자인수증 등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
- Noris 위변조 탐지 서비스 (신현준 노리스페이스 대표)
 - 디지털 서류에 있는 위변조 탐지 솔루션 제공
- Money should manage itself (김준태 왓셋 대표)
 - AI기반 금융 에이전트 OS를 개발해, 구독 관리부터 신용평가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환테크를 위한 첫걸음 (윤민성 커런시유나이티드 대표)
 - AI 금융 플랫폼으로 실시간 비당·타임프리즈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비과세 투자 환테크를 대중화
- 인증, 결제, 송금 통합솔루션 (김재설 크로스허브 대표)
 -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4세대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 소개

[금융감독원, 핀테크산업협회] 테크파인더 기업 VC 투자 페스티벌

- ‘테크파인더 쇼케이스’ 행사에 참여한 5개 기업(곳간로지스, 노리스페이스, 왓씽, 커런시유나이티드, 크로스허브)의 전용 부스에 해외 VC 방문 참관으로 세부 기술 시연 등 홍보 이후 ‘핀테크 커넥팅 데이’에 참석해 네트워킹 및 추가 상담 등 진행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 커넥팅 데이

- 핀테크 커넥팅 데이에서는 기업, 금융기관, 투자사, 기자, 해외 핀테크 협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나누며 사업 제휴를 논의하고 핀테크 기업*의 캐주얼 피칭 발표도 함께 진행되어 자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발표

* 고위드, 프랙탈에프엔, 한국법률데이터, 에임스, 리트러스트, 씨앤티크, 곳간로지스, 노리스페이스, 왓씽, 커런시유나이티드, 크로스허브

[한국산업은행]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

- H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퀴텀벤처스코리아 등 국내 우수 VC 및 유관기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5개社*가 IR 실시하였음. 효성벤처스, SBVA, 인터베스트 등 다수 VC들이 이번 핀테크 스페셜라운드에서 IR을 실시한 5개社*에 대해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유치 결과 기대

* 소프트먼트, 아이오로라,페이히어, 스위치원, 씨앤티크

[한국성장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에서는 7,088억원의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를 포함한 25명의 핀테크 전문투자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99건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핀테크기업과 전문투자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데일리파트너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마젤란 기술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신영증권,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SK증권, 인포뱅크, KB인베스트먼트,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 슈미트, 티인베스트먼트, 플렉스벤처스,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한화자산운용, 교보생명보험, 더인벤션랩, 스타벤처스, 블루웨일인베스트, 에이티넘벤처스

[은행연합회]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 약 15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컬 ‘유턴’을 공연하고, 보드게임 ‘금융맨 도둑잡기’를 진행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생활의 중요성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